1월 취업자 수 광주 ↑·전남 ↓

광주, 63만명 취업 … 지난해보다 1만4천명 늘어

전국 취업 증가 최저 … 새정부 '일자리 창출' 비상

지난달 광주지역은 고용사정이 소폭 개선된 반면 전남지역은 계절적인 영향으로 경제활동인구가 급감하는 등 대조를 보였다.

특히 전국의 경우 취업자 증가폭이 25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질 만큼 고용사정이 악화돼 새 정부의 일자리 창출에 비상이 걸렸다.

18일 광주전남지방 통계청이 발표한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현재 광주의 경제활동인구는 66만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월에 비해 9천명(1.3%) 늘어난 것으로, 전기·운수·통신 부문의 취업자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또 지난달 현재 광주의 취업자는 63만8천명으로, 1년 전보다 1만4천명(2.3%) 늘어나는 등 고용사정이 다소 개선됐다.

반면 전남은 지난달 경제활동인구가 90만6천명에 그쳐 지난해 1월보다 1만8천명(1.9%) 감소했다. 이는 계절적인 영향으로 농림·어업 종사자가 1만9천명 줄었기 때문으로, 전체 취업자도 지난해 1월보다 2만명(2.2%)이나 감소했다.

전국의 경우도 취업자 증가폭이 정부의 일자리 창출 목표를 크게 밑돌았다. 지난달 전국의 취업자는 2천296만4천명으로, 1년 전에 비해 23만5천명(1.0%) 증가했다.

이는 2005년 12월(20만5천명) 이후 증가폭이 가장 낮은 것이다. 전년동월비 취업자 증가폭은 지난해 6월(31만5천명)과 7월(30만3천명) 2개월 연속 30만명을 넘어섰다. 하지만 8월에 29만3천명으로 줄어든 이후 6개월째 정부의 목표치인 30만명을 밑돌고 있다.

이에 따라 이명박 정부는 출범 첫해부터 고용창출 목표 달성에 적잖은 어려움을 겪게 됐다. 최근 대내외 경기 동향이 좋지 않은 데다 취업자 증가폭까지 20만명대 초반으로 떨어지면서 당분간 고용 부문에서의 고전을 각오해야할 처지다.

특히 전문가들은 당분간 고용사정이 호전되기 어렵다는 데 입장을 같이 하고 있다. 고용은 소비·건설투자 등 내수 동향과 밀접한데, 최근 각종 경기 및 내수 지표들이 그다지 좋지 않기 때문이다.

송태정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당초 LG연구원은 올해 30만명 넘게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으나 1월 고용지표만 보자면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통계청 관계자는 "보통 겨울철인 1월은 계절적 영향으로 다른 달에 비해 일자리 창출 폭이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1등 전남농협 구현' 결의

농협전남지역본부(본부장 이덕수)는 18일 지역본부 소회의실에서 일선 시군지부장과 지역본부 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2008년 1등 전남농협 구현'을 위한 사업추진 결의대회를 가졌다. 〈전남본부 제공〉

대불산단 땅 13만㎡ 분양

토공 광주전남본부

한국토지공사 광주전남본부(본부장 한우석)는 영암군 소재 대불국가산단 내 토지를 추첨방식으로 분양한다고 18일 밝혔다.

분양대상 토지는 6필지, 13만3천㎡ 규모로, 산단 내 입주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집배송시설과 창고시설, 자동차정비공장 등 물류시설 및 자동차 관련 시설 용지 등이다. 분양가는 3.3㎡당 13만4천~13만8천원이다. 문의 062-360-3171.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광주은행 창사 이후 최대 실적

작년 순이익 1,127억 … 총자산도 20% 늘어 18조원

광주은행이 지난해 당기순이익과 세전이익 등 수익성이 크게 향상되면서 창사 이후 최대 실적을 거뒀다.

특히 광주은행은 지난해 금융권의 '머니 무브(Money Move)' 현상 속에서도 실적이 크게 개선되면서 초우량 '강소(强小)은행' 도약을 예고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은행은 우량대출 중심의 자산증대와 각종 상품 개발 등을 통해 총자산 18조3천억원에, 당기순이익 1천127억원(세전이익 1천524억원)을 달성했다.

이는 지난 1968년 창사 이래 최대 실적으로, 지난해 시중자금이 주식시장으로 향하는 '머니 무브' 현상이 거센 가운데서도 광주은행은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갔다.

총자산의 경우 2006년에 비해 3조1천억원(20.4%) 늘었으며, 총수신과 총여신도 1년새 각각 1조원(9.2%)과 1조2천억원(14.3%) 증가했다.

특히 당기순이익과 세전이익은 전년보다 각각 226억원(25.1%), 289억원(23.4%) 증가했다.

이처럼 실적 향상이 두드러진 것은 우량대출 중심의 자산증대와 철저한 리스크 관리, 비이자수익 강화 등 다양한 노력이 맞물린 결과라는 게 광주은행의 설명이다.

실제 신용카드 매출액은 적극적인 시장 공략에 힘입어 전년 대비 3천억원(28.8%) 증가한 1조3천억원에 달했으며, 비이자 수익증대를 통한 수익모델의 다양화도 역대 최대 실적에 한 몫을 했다.

서울지역 영업도 호조를 띠었다. 지난해 서울의 총수신 및 총여신 규모는 각각 3조8천억원, 1조8천억원에 달했다. 이는 1년새 각각 3천300억원(9.5%), 2천500억원(16.1%) 증가한 것으로, 지방은행 가운데 단연 실적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광주 광산업 공동브랜드(LUXKO) 1호 제품

글로벌광통신 'Dry Core Cable' 선정

글로벌광통신(대표 박인철)에서 생산하는 Dry Core Cable이 18일 광주 광산업 공동브랜드(LUXKO) 제1호 제품으로 선정됐다.

이를 계기로 LUXKO를 부착한 광산업 제품들이 잇따라 출시돼 국내는 물론 해외시장에서 광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릴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광통신은 국내외 광케이블 시장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은 업체로, 연간 광케이블 생산능력이 1만2천km에 달하며 지난해 10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Dry Core Cable 제품은 산업자원부에 의해 이미 세계 일류화 상품으로 선정된 바 있다.

LUXKO는 광주시가 지난 2003년 확정한 광산업 공동브랜드로, '빛을 한곳으로 모으고 빛이 확산되며 세계가 주목하는 한국의 광산업 위상을 정립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광주시는 2006년 말까지 국내를 비롯한 미국·일본·중국·유럽연합(EU) 등에 상표등록을 완료한데 이어 국내외 홍보활동을 전개해왔다.

전영복 한국광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은 "LUXKO 1호 제품 탄생을 통해 광주의 기술력을 세계시장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이를 통해 KT·하나로통신 등 국내 대기업들이 LUXKO 부착제품에 대한 우선구매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해외마케팅지원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기아차 무료 공항 발레파킹 서비스

〈대리주차〉

모하비·오피러스 멤버쉽 고객 대상

기아자동차㈜가 모하비와 오피러스 멤버십 고객에게 공항 편의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하는 등 VIP 마케팅을 더욱 강화한다.〈사진〉

기아차는 최근 출시한 대형 SUV 모하비와 오피러스 멤버십 고객들에게 공항에서 무료 발레파킹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모하비·오피러스 멤버십 센터(1588-5854)를 통해 공항이용 3일전에 예약하면 이용할 수 있으며, 현재는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에서만 이용이 가능하고 추후 다른 공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특히 기아차는 짐이 많은 고객을 위해 서비스 전담 직원이 수하물을 항공사 카운터까지 운반해주는 수하물 운반 서비스도 함께 제공한다.

한편 기아차는 2003년 오피러스 출시 이후 매년 오피러스 멤버십 고객을 오페라·발레·뮤지컬·콘서트 등 수준높은 문화행사에 초청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서울과 지방 대도시에서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밖에 기아차는 모하비와 오피러스 고객을 대상으로 ▲6년간 총 7회의 무상점검 서비스 ▲총 4회 엔진오일 및 오일필터·에이필터 무상교환 ▲전용 콜센터 운영(1588-5854) ▲제휴호텔 무료발레파킹 및 이용할인서비스 ▲고품격 문화공연 및 다양한 레저스포츠 행사 초대 등 '모하비 & 오피러스 멤버십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아시아나 '마스크 팩' 서비스

ITCA '머큐리 상' 수상

〈국제기내식협회〉

아시아나항공(대표 강주안)의 '마스크 팩' 서비스가 기내 서비스 부문의 오스카상으로 불리며 국제기내식협회(ITCA)가 주관하는 '머큐리 상(Mercury Award)' 기내 서비스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사진〉

'머큐리 상'은 매년 전 세계 항공사들로부터 각 항공사의 특화된 서비스를 출품받아 ITCA가 수여하는 상으로 항공서비스의 우수성을 가늠할 수 있는 세계적으로 그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상이다.

이 '마스크 팩' 서비스는 피부가 건조해지기 쉬운 기내에서 보습을 위해 마스크 팩을 제공해 여성고객은 물론 남성고객들에게까지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전남 3개郡 영어자금 특례보증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 전남지역보증센터(센터장 성의철)는 충남지역에 이어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전남도 3개군(신안·무안·영광군) 피해어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지원되는 특별영어자금에 대한 특례보증을 실시한다.

행정기관으로부터 어업인의 피해사실이 확인될 경우 언제든지 특례보증이 가능하며 대출금융기관은 전남도내 수협중앙회 점포에서만 가능하다.

특별영어자금은 정책자금으로 농신보 재해대책특례보증 대상자금에 해당돼 3억원 이내에서 보증지원이 가능하며, 보증료도 가산보증료 없이 현행 최저보증료(자연인 0.5%, 법인 0.7%)만을 내면 된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